

이선 고모를 욕하던 어른들은 공사가 끝나자 그런 일들을 잊어버렸다. 마을 행사에 고모가 나타나면 한켠에 자리를 내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굴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목격한 아이들은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했다. 마치 어른들의 감정싸움을 대리하듯이 복자와 나의 관계는 끊임없이 나빠졌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어른들 같은 기만의 기술이 없었고 한 번 받은 상처를 아무렇지 않은 듯 포장하는 기술도 없었다. 잃어버린 친구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도 알지 못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일상은 이어지지 않았다. 몇 걸음만 걸으면 학교 교문인데도 굳이 기다렸다가 같이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일상, 두 손으로 책을 꼭 쥔 채 그것의 낭만 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어가는 일상. 야, 너 머리카락 다 빠져나왔다 하면서 머리를 묶어주는 일상. 딱히 먹어치울 생각도 없으면서 둘이서 해변에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일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있던 일상. 복자는 화가 났고 마치 자기 엄마가 그런 모멸을 겪은 것처럼 원통해했다. 이혼 직전에 자기 엄마가 그런 냉담한 시선 속에 머물다가 성을 떠났기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복자도 왜 나를 용서할 수 없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하룻길, 말없이 복자 뒤에서 걷는 나에게 복자가 고개를 핵 돌려 이제 정말 자신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했다.

“왜인지 알아?”

“왜 그런데?”

나는 아주 아프고 슬픈 표정으로 되물었다.

“나 너가 의사 선생님 편지 보여준 거 선생님한테 다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복자는 의기양양하기는커녕 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울고 싶어서 거의 찡그리다시피 한 얼굴이었다.

“언제?”

나는 입안이 바싹 말라 겨우 물었다.

“한 달 넘었어.”

나는 내가 편지를 훔쳐봤다는 걸 고모가 이미 알았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우편 아주망은 관사가 아니라 보건소로 들렀고 노트북을 산 고모는 전동타자기를 아예 마루에 내놓았다.

왜 뭔가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아파?

나는 일기장에 이런 말들을 쓰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그러다 12월에 접어들어서부터는 복자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처음에는 손으로 쓰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면 눈물이 너무 쉽게 나는 것 같아서 허리를 반듯이 세우고 고모의 전동타자기로 쓰기로 했다. 가장 먼저 자판으로 친 말도 복자에게. 옹고 가장 빈번하게 쓴 말도 복자에게. 였다.

복자에게.

복자야 안녕. 오늘 붓글씨 수업은 잘했니? 오늘 너가 벼루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빌려주고 싶었는데 네 짝이 빌려주었더라.

복자에게.

복자야 안녕, 성탄절에 요기 해왕선사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거기를 갈 생각이 있니? 그런데 왜 절에서 성탄절에 선물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 정말 웃기고 웃긴 농담 같지.

복자야 안녕, 가게 될 중학교는 마음에 드니? 너가 엄마가 있는 제주시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기뻐. 이제 엠비시 공개방송 매일 갈 수 있겠어.

복자야. 안녕?

복자에게.

복자야. 할망이 너가 잘 안 온다고 뭐라 하시더라.

제순이는 이제 눈썹이 없어. 다 지워지고 안 특별해졌어.

복자야.

복자야. 안녕.

복자에게.

복자야, 나는 이제 서울로 갈 것 같아.

그 많은 편지들은 부쳐지지 않고 모두 폐기되었다.